

## 당뇨치료제 개발 캐나다 윤지원박사

캐나다에 거주하는 교포의학자에 의해 당뇨 치료에 획기적인 신약이 개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캐나다 켈거리 대학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켈거리대학교 당뇨연구센터 윤지원 박사가 만들어낸 'P-700'이라는 약은 이미 700여 차례의 임상실험을 통해 발병한 지 5개월 이내의 성인형 당뇨병에 대해서는 70% 이상을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을 정도로 획기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당뇨관련 신약은 벤쿠버의 EBMR사와 켈거리대학 당뇨연구센터가 산화염계들 통한 공동연구를 추진한 성과로 신약의 상품화에 대한 권리는 EBMR사가 갖기로 계약했으며 이미 엘레오팀이라는 이름의 건강차르 응용되어 북미지역에

판매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윤지원박사(63)는 지난 23년간 바이러스와 관련된 당뇨병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로 이미 세계 일인자로 꼽히는 인물로 금년 KBS해외동포상 학술부문상을 수상한 바 있다